

‘안전’에 대한 용어적 및 어원적 연구

이 장 국

한중대학교 자동차공학과

(2007. 3. 11. 접수 / 2007. 4. 14. 채택)

A Terminological and Etymological Study about ‘Safety’

Jang-Gook Lee

Department of Automotive Engineering, Hanzhong University

(Received March 11, 2007 / Accepted April 14, 2007)

Abstract : The terminological definition of ‘safety’ is difficult because the word has an abstract meaning and the usage is too wide and various in itself. There could be various meanings of ‘safety’ according to the specific area on which the term is used. Even though the variety is permitted, a definition on the term of ‘safety’ is necessary not only to raise the understanding of consistent terminological meaning but also to make assure the perfectness on all of the applications. The term of ‘safety’ can be understood clearly by the comparison with the antonym and the synonym, and the limitation of the usage can be established through the comparative studies. Comparing with the antonym such as ‘risk’, ‘safety’ implies the recognition and prevention of the danger before an accident or a disaster occurs. Comparing with another antonym of ‘disaster’, ‘safety’ comprehends all the saving activities for the disaster and the measures to prevent the spread of collateral damages. The comparison with the synonym, ‘security’ shows that ‘safety’ can include the prevention of intentional mishaps. The Korean word of ‘safety’ might be selected by a scholar who was well educated to understand Chinese language and certain canonical texts written in Chinese. The etymological study of ‘safety’ was concentrated on I-ching which has been believed that could foretell a future and show a measure to prevent bad luck by performing good virtue in the life. The Korean word of ‘safety’ might come from Xicizhuan(Great treatise) which is known as one of ten commentaries for I-ching. The texts from Xicizhuan describes that all of the explanations about safety which could be translated to the principles of safety nowadays.

Key Words : safety, etymology, I-ching, risk, disaster, security, Xicizhuan(Great Treatise)

1. 서 론

안전(safety)이란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는 이유는 그 용어 자체가 추상적일 뿐 아니라 그 사용 영역에 따라 취하고 있는 내용도 다르며 그 범위 역시 해당되지 않는 곳을 찾기 힘들 정도로 넓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가장 가까이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인 한편, 공학적으로는 기계·전기·항공·건설 등의 모든 산업분야에 걸쳐 적용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항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원자력·의료·식품 등에서 필수 불가결한 분야로 취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일반적인 사용에서부터 전문적인 활용에 이르기 까지 안전이라는 용어가 다양하게 쓰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차이는 인정하더라도 쓰임이 다른 모든 분야에 걸쳐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 정의를 찾음으로써 안전에 대한 이해를 높일 뿐 아니라 그 적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다.

안전이라는 낱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고나 재해를 당할 위험이 없는 상태”로 기술함으로써 “외부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적 또는 물적인 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편안하고 온전하게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1,2)}. 이러한 일반적인 설명이 안전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모든 사용처에 타당하게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사용례로써 ‘안전공학’에서 기술하고 있는 ‘안전관리’의 측면에서 볼 때,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나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는 것¹⁾만으로도

안전에 대한 충분한 기술이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용어의 사용례에 따른 검토만으로 용어의 정의가 명확해지겠지만 이는 현재라는 시점에 한정된 것이므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이 용어가 성립된 과정을 재구성하여 현재와 같이 쓰이게 된 연원을 살펴봄으로써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할 수 있고, 그와 관련된 글들을 전적(典籍)들 속에서 확인함으로써 안전이라는 용어가 정의되고 사용되는 범위를 한정적으로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본고를 계획하였다.

2. 사전적 의미

우선 안전이라는 낱말이 사전에서 어떻게 기술되고 정의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현재 통용되고 있는 안전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며, 우리말에서는 어원이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영어 'safety'는 어원적으로 분석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 안전이라는 용어의 성립과정을 확인하고 그 사용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2.1. 전체적 의미

안전(安全)이란 '편안(便安)하고 온전(穩全)하여 걱정이 없다²⁾, '탈이나 위험성이 없음³⁾, 그리고 '사고·사건이 생길 위험이 없이 온전한 것⁴⁾'이라는 사전적인 정의를 찾을 수 있다. 이들 정의에서 본다면 안전이란 '편안할 안(安)과 '온전할 전(全)'의 합성어로 사전에서의 낱말 뜻 역시 이를 풀어서 쓴 것으로 쉽게 유추해볼 수 있다. 편안은 무사(無事)한 것으로써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이며 '온전하다'의 낱말 뜻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²⁾.

- ① 갖추다, 갖추어지다.
- ② 상처가 없다, 흠이 없다.
- ③ 무사하다.
- ④ 상하지 아니하다.

이상과 같이 풀어서 개별적으로 정의한 것이나 한마디로 표현해서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하다"^{3,4)}로 기술하고 있는 것 모두가 다 동일한 사상(事象)을 비슷한 내용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안전이라는 사전적 의미에서 사고가 없다는 것과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외에 그 뜻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용어에

대한 의미적 분석과 의미 강화가 필요하다.

2.2. 한자로 새긴 의미

앞 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안전'이라는 낱말은 한자의 합성어로 유추된 만큼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단어를 구성한 한자(漢字) 각각에 대해 본디 뜻으로 새겨볼 필요가 있다.

먼저 '편안할 안(安)'은 집의 지붕을 의미하는 자머리(宀, 집 면) 아래에 여자가 있다는 것으로 여자(女)는 집 안에 있을 때 무사한 것으로 "안정되어 편안하다"는 뜻으로 새긴다.

그리고 '온전할 전(全)'자는 임금 왕(王)이 궁(宮) 안에 들어(入) 있을 때 왕의 신변이 온전하다고 풀이하여 쏘의 뜻을 '온전하다'라고 새기기도 하며, '들입(入)'과 '구슬 옥(玉)'의 변한 형태인 '임금 왕(王)'이 합쳐진 글자로서 수중(手中)에 들어온 구슬, 즉 흠이 없는 구슬처럼 완전무결한 상태를 말한다는 자원(字源)을 제시한다^{5,6)}.

위에서 열거한 현행의 국어사전에서도 '편안하고 온전함' 또는 '위험하지 않음'이라 정의하고 있지만 안전이 추상적인 사상(事象)을 나타내는 단어이며 여러 분야에서 조금씩 표현상의 상이함을 보이고 있는 이상 현재의 정의로 확정되기까지 그 의미가 분화(分化)되고 강화되었던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의미를 구체화시키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2.3. 'Safe'의 어원적 검토

'안전'이라는 낱말로 번역되는 영어인 'safety'는 근세, 즉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산업재해의 발생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그 해결방안이 강구되면서 산업 내지는 사회적 전문 용어로서 정착하였지만 '안전하다'는 뜻의 일반적인 단어는 그 이전부터 사용되었던 것이다.

'Safety'가 명사인 반면 형용사인 'safe'는 "상처를 입지 않은, 또는 해를 입지 않은"이라는 뜻을 가진 프랑스 고어(古語)인 'sauf'로부터 유래하였다고도 하며, "상처를 입지 않은, 건강한, 또는 안전한"이라는 뜻을 가지는 라틴어 'salvus'를 어원으로 꼽기도 한다. "건강함"이라는 뜻의 라틴어 명사인 'salus'와 형용사 'saluber'는 "건강하다"는 뜻을 갖고 있지만 앞서 말한 "안전한"이라는 뜻의 라틴어 'salvus'와 어간(語幹) 'sal-'이 같다는 것으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의 단어들 모두는 원시(原始) 인도-유럽어인 'solwos'에서 왔으며 'solwos'의 어간은 'sol-'로 "전

부, 모두, 또는 완전한”이라는 뜻을 갖는다. 여기에서, “건강하고 안전하다”는 뜻의 어원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다보면 말의 주된 부분인 어간이 “전부, 또는 온전하다”는 뜻을 가진다는 데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앞서 한자를 기초로 안전의 의미를 새겼을 때 이미 언급된 부분으로 흠이 없는 구슬이 “전체 또는 온전함”을 나타내며 쏘이 낱말의 주된 부분, 즉 어간임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앞서 말한 원시 인도-유럽어 ‘solwos’가 “온전하다”는 뜻을 가졌던 것처럼 ‘solidus’는 라틴어로 “고체와 같이 한결같음”을 뜻하며, 산스크리트어에서는 ‘sanah’가 “상처입지 않은, 본래대로의, 온전한”이라는 뜻을 가지며, 조로아스터교의 경전에서는 ‘haurva’가 “상처입지 않은, 본래대로”라는 뜻으로 읽히며, 페르시아 고어에서의 ‘haruva’와 그리스어 ‘holos’는 “온전하다”는 뜻을 갖는다⁷⁾.

‘safe’의 어원적 검토로부터 ‘안전’의 사전적 의미의 한 부분인 “편안하다”라는 뜻은 발견할 수 없었으나 여러 다른 언어들로부터 “상처가 없는, 본디 그대로의 온전함”이라는 의미가 주된 사상으로 검토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는 달리 말해서 안전이란 아무런 일이 없어서 본디 그대로 온전함은 당연하며, 비록 어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온전하게 되는, 즉 어떤 상황에서도 온전함을 이루는 것에 그 주된 뜻이 있음을 보여준다.

3. 의미적 분석

앞서의 사전적 의미 검토에서는 ‘안전’을 자의(字義)에 따라 해석한 반면, 그 뜻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상대하는 말과 대비(對比)해 봄은 물론 유사한 말과 비교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안전’에 상대되는 뜻을 가지는 낱말들인 ‘위험’, ‘재난’ 또는 ‘재해’와 비교하여 봄으로써 ‘안전’에 대한 활용을 한정지음으로써 그 의미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그리고 ‘안전’과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용어들과도 비교를 통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비교검토를 통해 안전이라는 낱말의 의미가 뚜렷해지는, 의미강화가 이루어지고 활용에 있어서도 그 한계가 분명해지게 될 것이다.

3.1. 상대어 ‘위험’과 비교

위험(危險)의 위(危)는 사람이 언덕 위에 있는 모양과 卍(병부 절)을 더한 것으로 “병부(兵符)를 받든

사람이 절벽 위에서 떨어질까 봐 조심한다”는 데에서 “위태하다”라는 뜻을 나타낸다⁴⁾. ‘위험’은 위태하거나 안전하지 못하다는 뜻이다. “위태하다”의 낱말 뜻은 형세가 매우 어렵다가 마음을 놓을 수 없거나 안전하지 못하고 위험하다는 것이며, 한마디로 마음을 놓을 수 없을 정도로 형세가 매우 어려운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다²⁾.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면, 지금 당장은 특정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상태가 아니지만 그러한 상황으로 전개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험한 상태에 아주 가까워진 것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볼 때, 험한 현재의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사고나 재난이 발생하여 큰 피해를 입게 되는 등의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다.

위험이란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측되는 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뜻하며, 그러한 가능성을 인지하여 대비하고 예방함으로써 사고 발생률을 최대한 줄이거나 사고 발생시 피해규모를 최대한 작게 함으로써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다.

상대어는 특정한 의미에 한해서 가역(可逆)적일 뿐 사용범위가 넓은 낱말일수록 그 모두를 포괄하는 상대어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겠다. 안전의 상대어가 위험이라고 해서 모든 위험에 대해 그 역(逆)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험의 유형이 다르다고 판단되는 것들 중에서 그러한 위험을 회피 또는 제거하는 것만으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안전이라는 용어의 사용범위한계를 확정(劃定) 지을 수 있다. 특정한 위험에 대비하여 보장해 주는 특정 보험으로부터 그 대상이 되는 위험의 유형이 구분되며, 만약 그러한 특정의 위험이 제거된다면 어떠한 결과로 표현되는지를 나타내 보면 Table 1과 같다.

안전의 상대어로 위험을 꼽을 수 있겠지만 Table 1에서 나타내 보인 것처럼 위험의 유형 중에서도 물적이나 인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재난에 대해서만 안전이 가역(可逆)적인 상대어로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Table 1. Comparison on danger according to the types

유형	위험 대비 특성보험	회피 및 제거 효과
실직	고용보험	고용 안정
질병/건강 상실	건강 및 의료보험	건강 확보/유지
물적/인적 손해	자동차, 생명, 및 손해보험	안전 확보/유지

3.2. 상대어 '재해'와 비교

안전(安全)과 재해(災害)의 차이점은 앞 절에서 논의된 바처럼 안전의 상대어인 위험, 특히 예상되는 어떠한 위험에 대해 주의하고 대비(對備)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거나 사고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는 것이 안전인 반면,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한 사고이거나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당하게 되어 그 피해의 규모가 큰 것이 재해인 것이다.

'재해'란 "안전관리를 하지 않아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한 인적 또는 물적 손실의 총체적인 피해"라는 '재난피해(災難被害)'의 준말이다. '재난피해(災難被害)'에서의 '재난(災難)'은 뜻밖에 일어난 재앙(災殃)과 고난(苦難)으로써 사고 그 자체를 뜻하고 '피해(被害)'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피해, 즉 사고로 말미암은 결과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고 자체와 결과의 의미를 한마디로 함축하여 재해(災害)라고 표현한 것이다⁸⁾.

현재 재해를 크게 '자연재해'와 '인적재해'로 구분하고 있으나 통용되고 있는 용어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때문인지 재난(災難)은 인적재해(人的災害)로, 재해(災害)는 자연재해(自然災害)로 해석하고 있기도 하며, '재난'과 '재해'를 혼동하여 쓰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재난'과 '재해'를 구분하자면, 발생한 어떤 하나의 사고에 대해서 사고 자체가 '재난'이며 사고에 따른 피해는 '재해'이므로 양자를 인과관계로 구분해야 하는 것이 사고의 주체가 다른 것으로 분류해서는 안 된다. '인적재해'처럼 인위적인 재난에 따른 피해임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해 독립된 용어를 선택하여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재해'를 '자연재해'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으로써 기존의 낱말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단어의 정의를 통해 의미를 명확하게 하려는 의도와는 배치(背馳)되는 것이라 하겠다.

재해가 사고의 결과로 나타나는 피해인 만큼 그 피해를 가져오게 될 사고를 사전에 알아채어 사고 발생을 미연에 막는 것이 안전인 것이다(Table 2 참조). 재해가 재난에 의한 피해를 뜻하므로 피해의 규모에 따라 재해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발생한 재난에 의한 독립적인 물적 피해나 인적 피해와 같이 그 피해 정도를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것 외에도 심리적인 피해나 파급 효과에 의해 생성되는 2차, 3차의 피해

Table 2. Comparison between safety and disaster

	안전(安全)	재해(災害)
현상	위험의 인지	재난 발생
대책	안전관리	수습대책 및 계획
활동	예방	구조 및 수습
시점	사고발생 이전	사고발생 이후

를 감안한다면 결코 재난 이후에 수치상으로 집계되는 피해의 정도 혹은 규모만으로 간단히 판단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사고 발생 이전의 안전관리를 통하여 현상적인 피해의 규모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준비된 상황에서 예견된 재난을 겪는 것이 심리적으로도 쉽게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되므로 재해에 대비한 예방과 피해에 대한 수습대책을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안전이 성취되거나 안전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하겠다.

인적재해의 특수한 경우인 산업재해는 자연재해와는 달리 인위적 환경인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여기에서 인위적 환경이라는 조건에 대해서는 작업자가 외적 환경에 특별한 지식을 가지고서 합리적인 행동을 하도록 할 것이 엄격하게 요구된다. 이러한 인위적 환경에서의 재해는 사고 발생 이후 수습을 강조하기보다는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한 안전관리를 통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사고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것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3.3. 유사어 '보안'과 비교

안전(安全)과 보안(保安)은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유사함이 있다고 하겠으나 발생하는 사고의 견지에서 본다면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즉 고의에 의해 발생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과 사고를 발생케 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그 제거 방법 역시 다를 수 있으므로부터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안전(安全)사고'란 단순히 안전을 위하여 지켜야 할 규칙 또는 원칙을 무시하거나 잠시 그 관리를 소홀히 하여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 즉 행위자의 판단착오, 과신 또는 자만에 의한 실수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이러한 사고는 사전에 주의하고 관리함으로써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안전을 무시 또는 경시한 사고에 있어서 행위자가 행위의 주체로써 피해의 상당부분을 책임져야 한다.

보안(保安) 역시 안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는 하지만, 보안이 추구하고 있는 바인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행위자의 부주의에 의해 기인하기보다는 고의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에 그 차이가 있다. 물론 안전사고에서처럼 사전에 주의함으로써 일정부분은 예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실수하지 않음으로써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수단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에서도 그 다름을 알 수 있다.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사실은, 과실에 의한 사고로부터의 보호보다는 고의에 의한 사고로부터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으로, 사고의 주체가 되는 잠재적 위험, 즉 고의적으로 사고를 일으킬 것이 충분히 예측되는 위협에 대한 준비를 통하여 안전(安全)이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Table 3 참조).

‘보안’과 유사한 형태의 낱말로써 국제정치 용어인 ‘안전보장(安全保障)’, 즉 국가적 차원에서 폭넓게 사용하는 ‘안보(安保)’는 영어의 ‘security’를 어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한가지로 봄이 마땅하다. 그렇지만 ‘보안’이 ‘위험이라든가 위협으로부터 자기의 안전을 지키고 공포, 불안, 근심이나 걱정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는 일반적인 정의를 하고 있는 데에 비해 ‘안보’는 안전의 의미를 내포하면서도 그 적용대상과 규모를 국가나 사회로 넓혀 ‘사회나 국가의 안녕·질서를 보전한다’는 의미로 사용한다는 것에서 그 차이를 찾을 수 있다.

사회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간주하였을 때, ‘안전’은 부주의 또는 과실이라는 내재적(內在的)인 위험을 포함하고 있어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 내재적 요인에 의한 위험을 상당부분 경감시킬 수 있는 반면, ‘보안’은 외재(外在)한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의미하므로 자체적인 노력 여하에 따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능력에 대한 강화는 이를 수 있겠으나 자체적인 주의와 경각심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외재하는 위협에 영향을 끼

칠 정도로 만들기는 더욱 어렵다고 하겠다. 단지 안전을 추구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안전’과 ‘보안’은 유사하지만 시스템의 내·외를 가리지 않는 일반적이면서도 우연성을 띤 위험에 대비(對備)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안전’이므로 외부로부터의 위협이나 위협에 초점을 맞춘 특수하고도 고의성이 짙은 위협에 대한 안전 확보라는 의미의 ‘보안’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 어원적 고찰

‘안전’이라는 말의 어원을 거슬러 찾아 올라가 보면 그러한 말이 생기게 된 이유를 알게 될 것이며, 그러한 이유를 알게 되면 낱말의 뜻이 지금은 다양하게 분화되어 사용될지라도 어원에서는 한 가지로 분명해질 것이다. 그리고 사용된 예들을 어원과 함께 살펴봄으로써 의미의 강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어원을 탐색하고 고찰하기로 한다. 안전의 의미를 가장 심층적으로 다룬 전적으로 주역을 꼽았고, 이를 통해 어원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4.1. 우환의식(憂患意識)

‘안전’이라는 낱말이 애초에 지금의 형태로, 같은 뜻의 낱말로 사용되지 않은 이상 ‘안전’과 관련된 구절을 찾기란 그리 쉽지가 않다. ‘안전’이라는 낱말이 한자어이므로 한자로 기술된 전적들로부터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한편, 현재와 같은 의미는 아니라 하더라도 유사한 글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게끔 한다. 그렇지만 ‘안전’이라는 용어가 현재와 같은 보통명사로써 자리 잡기 이전에, 근대문명이 서양으로부터 전수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번역어로서 채택되었음이 분명하나 그 근거가 제시된 바는 없다⁹⁾.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미래를 예측하여 대비할 수 있다’고 여겨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임혀지고 연구되었던 변화의 원리의 책인 ‘주역’으로부터 ‘안전’의 의미에 부합하는 글귀들이 발췌되어 쓰였을 것이라는 추측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글귀를 찾아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논하고자 한다. 앞으로 제시되는 글귀들로부터 ‘안전’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짐작되는 부분들과 관련된 글들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위의 가정이 적절한지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될 것이다.

Table 3. Comparison between safety and security

	안전(安全)	보안(保安)
영어표기	Safety	Security
사전적 의미	편안하고 안전하여 걱정이 없음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걱정이 없도록 함
원인에 의한 구분	실수나 과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고의적으로 발생하는 사고
어원적 비교	Freedom from Harm 본디 그대로의 온전함	Freedom from Risk 위험으로부터의 자유로움

먼저 주역의 저자가 우환을 겪은 사람이었지 않았을까하는 기술¹⁰⁾로부터, 주역을 통해 밝히고 있는 주요 내용의 하나로 우환에 임하는 사람의 도리를 제시한 것을 들 수 있다¹¹⁾. 이러한 우환의식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자기 존재에 대한 자각과 자기 완성에 대한 도덕적 실천의 책임감을 강조함으로써 모든 일에 대하여 계신공구(戒愼恐懼)의 태도를 견지하려고 하는 생각을 말함”이다. 유교에서 널리 사용된 경전으로써의 주역은 총체적으로 윤리나 의리의 측면에서 해석되었다. 그리고 위에서 보인 우환의식에 대한 설명을 바꾸어 말해서, ‘재난을 항상 걱정하고 대비하려는 생각들의 모임’으로 보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한다. ‘근심 환(患)’의 여러 뜻 중에서 재난이나 재해를 찾을 수 있으며, ‘근심할 우(憂)’란 걱정 또는 근심함을 이르는 말이므로 우환(憂患)이란 한마디로 ‘재난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다.

주역의 글귀 중에서도 환(患)이 재난을 뜻하는 것임을 卦序로 볼 때 63번째 괘인 既濟괘의 大象傳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찾아 볼 수 있다.

君子以思患 而豫防之¹²⁾

“군자는 장차 다가올 재난을 생각하여 미리 막음이라”고 한 즉, 안전의 원리가 간단명료하게 설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재난에 대비하여 어떻게 해야만 안전이 성취되는 것인지를 밝히는 내용의 글을 같은 책의 다른 곳에서도 발견하게 될 것이며, 그로부터 안전의 어원 또한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2. '안전'의 어원

주역 繫辭傳(下)의 第5章에 나와 있는 風雷益卦의 上九에 대한 계사(繫辭)를 살펴보면 그 어원으로 추측되는 구절로 다음과 같은 글귀를 읽게 된다.

君子 安其身而後動，
易其心而後語，
定其交而後求，
君子 修此三者故全也。¹²⁾

“군자는 자신의 몸이 안전하다고 판단한 뒤에야 움직이며, 자신의 마음이 평안함을 이룬 이후에야 말하며, 그 사귀이 굳게 된 이후에야 도움을 청한다. 군자는 이 세 가지를 닦음으로써 온전(穩全)하다고 할 수 있다”는 위의 글은 ‘君子’란 주어와

종결어 ‘也’를 제외한다면 완벽하게 ‘安’을 머리로 ‘全’을 꼬리로 한 글귀로써 ‘安全’이란 말이 만들어진 곳으로 삼기에 더할 나위가 없다.

‘안전’이라는 낱말의 출처로 간주되는 상기 글에서의 ‘군자(君子)’를 일반적인 ‘사람’이라는 말로 바꾸어 놓으면 현시점에서도 쓸 수 있는 안전수칙과 다르지 않다. 단지 여기에서 보충해야 할 부분을 든다면 안전을 판단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안전규정이 언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그러한 규정에 비추어 안전하다고 판단한 후에 움직이는, 즉 작업을 실시한다면 안전수칙으로써 조금의 손색도 없을 것이다.

한 문장을 대표하는 처음과 끝 글자를 조합함으로써 안전을 위한 행동지침을 함축하여 기술하게 된다는 사실은 외래(外來)의 문명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safety’의 번역어으로써 ‘안전’이라는 낱말을 선택하게 되었으리라는 것을 추측하게 한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다음 구절에서는 안전이 ‘사고·사건이 생길 위험이 없이 온전한 것’임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기술된 것처럼 다음과 같이 읽힌다.

危以動，則民不與也。
懼以語，則民不應也。
無交而求，則民不與也。
莫之與，則傷之者至矣。¹²⁾

“위태로운 가운데 움직이면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을 것이며, 마음속으로 두려워하면서 말하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으며, 충분히 사귀어 친하지도 않으면서 도움을 바란다면 그 역시 사람들이 들어주지를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해치는 자가 이를 것이다”로 읽혀지는 윗글의 마지막 구절을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는 데에도, 즉 위태로운 데에도 함부로 움직이려고 한다면 상해를 입을 것이다’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앞서의 두 문장을 비교해 보면, 글의 첫머리에서는 ‘편안할 안(安)’과 그 상대되는 ‘위태로울 위(危)’를 대비하여 보이는 한편, 글의 말미에는 안전수칙을 지킨다면 온전하게 됨과 그렇지 못한 경우 피해를 입게 됨을 ‘온전할 전(全)’과 그 상대 의미의 글자인 ‘다칠 상(傷)’으로 대비시켜 기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안전을 위험과 대비함으로써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한 것은 물론 인과관계를 통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4.3. '안전' 對 '위험'

가) 안이불망위(安而不忘危)

표제의 글은 앞 절에서 안전의 어원으로 추정되는 글이 나와 있는 장(章)과 동일한 장(章)인, 주역 繫辭傳(下)의 第5章의 계사(繫辭)에 보이는 글로써 天地否卦의 九五의 효사(爻辭)에 대한 공자의 생각을 피력한 것이다. 안전을 위험과 대비하여 나타내 보이면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지켜진 안전이 작게는 '보안(保安)'이며 크게는 '안보(安保)'임을 제시하고 있다.

危者 安其位者也。
亡者 保其存者也。
亂者 有其治者也。

是故 君子 安而不忘危，

存而不忘亡，

治而不忘亂，

是以 身安而國家 可保也。¹²⁾

“위태롭지 않을까”하고 걱정함이 그 지위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며, ‘잃지 않을까’하고 걱정함이 어느 것도 잃지 않고 잘 간수하도록 할 것이고, ‘어지러워지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잘 다스려지게 하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군자가 안전하게 지내면서도 위태로울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며, 잘 간직하고 있는 것일지라도 언제든지 잃을 수 있음을 잊지 아니하며, 다스려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지러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다. 이로써 작게는 일신상의 안전이 보장되며 크게는 국가 역시 보전될 수 있는 것이다”고 상기 원문을 풀이할 수 있다.

주역 繫辭傳(下)의 第5章에 나타난 상기의 글들을 나타난 순서대로 늘어놓고 보면 먼저 안전을 위험과 대비하여 나타낸 글귀가 임하지도록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괘(卦)의 순서대로 따져 본다고 하더라도 天地否가 12번째의 괘이고 風雷益이 42번째 괘이기 때문에 서괘(序卦)상의 순서대로 기술하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계사전의 동일한 장(章)에 언급된 11개의 괘들은 서괘전의 순서에 관계없이 나타나 있으므로 다른 타당한 논리를 찾을 필요가 있다. 오히려 동일한 사상(事象)에 대해서 각 괘들이 어떠한 논리적 과정을 이루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안전이라는 사상만으로 볼 때, 먼저 안전이 어떻게 달성되는지를 위험의 인지에서부터 설명한 다음, 앞 절에서 거론한 안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전을 위한 행동지침의 준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리로써 글의 앞뒤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맞춘 것으로 볼 수도 있다(Table 4 참조).

Table 4. Safety described in I-ching

	주역의 괘	
	天地否(12)*	風雷益(42)
안전관련 사항	위험의 인지	안전수칙의 준수
주역 원문	安而不忘危	安其身而後動
뜻 풀이	안전하게 지내면서도 위태로움을 잊지 않음	안전하다고 판단한 후에 행동함

* ()안의 숫자는 주역 서괘전 상의 순서로 매겨진 것임.

나) 거안사위(居安思危)

표제의 글은 춘추좌씨전(春秋左傳)에 나오는 것으로 앞서의 ‘安而不忘危’와 같이 ‘편안함에 거하면서 위태로움을 생각한다’는 뜻의 고사성어이다.

居安思危

思則有備

有備無患¹³⁾

“편안함에 거하면서 위태로움을 생각하고, 그렇게 위태로움을 생각한 즉 위험에 대비(對備)하게 될 것이며, 대비를 잘 함으로써 재난을 면할 수 있다”로 해석되는 위의 글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을 잘 나타내 보이고 있다. 먼저 위험을 인지하고, 인지된 위험에 대비하여 결과적으로 재난을 막는다는 안전관리의 요체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4.3. '천재(天災)', '인재(人災)'와 '생재(生災)'

현재 재해를 '자연재해'와 '인적재해'로 구분하듯 옛적부터 '자연발생적인 재해'와 '인위적인 재해'로 구분하여 사용해 왔음을 글자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태풍, 홍수, 산불, 지진 등과 같이 사람으로서 어찌할 도리가 없는 불행한 일들을 나타내는 '재앙 재(災)'는 글자 그대로 내 천(☵)의 형상과 불 화(火)가 함께 하여 물과 불에 의한 재난으로 입는 손실을 뜻한다. 그런데 유사한 뜻을 가진, 스스로 불러들이는 재앙, 즉 인위적인 재앙을 뜻하는 '재앙 생(生)'을 구분하여 쓰고 있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의미는 똑같이 재앙(災殃)으로 정하고 있지만 그 쓰이는 용도가 전자의 '재앙 재(災)'는 자연 발생적이며 불가항력적인 재앙을 뜻하는 반면, 후자의 '재앙 생(生)'은 인위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은 재앙으로 충분히 막을 도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쓰인다¹⁴⁾.

천재(天災)는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재난과 그 피해를 말하며, 인재(人災)는 인간의 부주의, 태만 따위가 주된 원인으로써 발생할 수 있

는 재해를 뜻한다. 여기에 덧붙여 생재(生災)란 인간 스스로 잘못하여 허물을 저지름으로써 생기는 재앙으로 人災와 유사한 뜻을 가진다²⁾. 물론 人災와 生災는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것으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점에서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人災가 일반적이고도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통틀어 말하는 한편, 生災는 특히 도덕적인 잘못에 의해 야기되는 사고 또는 피해를 지칭한다. 안전공학 측면에서 生災를 정량적으로 다루기는 힘들겠지만, 과학이나 공학에서 윤리 도덕적인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그 과정이나 결과를 통해 관련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5. 결론 및 토의

안전은 '아무런 일이 없이 본디 그대로 온전하다'는 사전적 의미 외에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상대어 및 유사어와의 비교검토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그 의미의 한정된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1) 위험과 대비해서 보면, 안전은 사고 이전의 상태에서 사고 예방적인 요소를 포함한다.
- 2) 재해와 대비해서 보면, 사고 발생 후 피해를 수습하는 활동을 포함하며 피해의 확산 방지까지도 포함한다.
- 3) 보안과의 비교를 통해서 보면, 과실에 의한 사고 외에 고의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안전까지도 포함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안전의 어원을 주역에서 찾은 바, 주역 계사전의 구절로부터 '안전'이라는 단어가 구성, 채택되었으리라는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주역 계사전에서 언급된 안전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고, 즉 위태로움에 대한 주의를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하는, 위험의 예지(豫知)를 강조하였으며, 안전을 위한 행동 관리의 필

요성으로는 안전함이 확인된 후 행동으로 옮길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안전이 위험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인식되어 비록 안전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예상되는 위태로움에 대하여 준비한다면 다가오는 재난을 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주역 계사전은 잘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안전 확보 과정 역시 글의 구성과 배열을 통하여 제시되고 있다.

주역에서 언급된 안전이라는 개념을 산업과 문명이 고도로 발전한 현대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겠지만 자연재해와 인적재해 외에도 부도덕함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解弛)나 도덕불감증에 의해 초래되는 위험인 생재(生災)까지 지적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하겠다.

참고문헌

- 1) 이진식, "안전공학," 동원출판사, 2000.
- 2) 민중서림편집국, "民衆 옛센스 국어사전," 民衆書林, 1997.
- 3) 한글학회, "우리말 큰 사전," 어문각, 1992.
- 4) 사회과학원 언어 연구소편, "조선말 대사전(하) ㅈ-ㅇ," 동광출판사, 1992.
- 5) 두산동아 사서편집국, "동아 百年玉篇," 2006.
- 6) 民衆書館編輯部,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1986.
- 7) On-line Etymology, www.etymonline.com.
- 8) (재)한국건설안전기술원, www.kicst.com.
- 9) 야나부 아키라, "번역어 성립 사정," 도서출판 일빛, 2003.
- 10) 김혁제, "原本集註 周易", 明文堂, 繫辭傳(上) 7章 1986.
- 11) 박신환, "주역의 이해 : 주역의 자연관과 인간관", 서광사, 1990.
- 12) 김석진, "大山 周易講解(下經)", 大有學堂, 1997.
- 13) 富山房 編輯部 "漢文大系(11) - 春秋 左氏 會箋", 富山房, 襄公 二 第十五 11年, 1973.
- 14) 김석진, "大山 周易講解(上經)", 大有學堂, 1997.